

손흥민, 또 레알마드리드 이적설

토트넘, 새 구장 빛으로 긴급 대출 손 이적료 하한선 2055억원 설정

‘손세이셔널’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주말을 뜨겁게 달궜다. 또 한 번의 이적설이 터지면서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캡틴’에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러브 콜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페인 스포츠 전문매체 돈 발롱과 영국매체 팀 토크는 6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손흥민에게 강한 애정을 갖고 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당사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 후 전 세계의 다양한 미디어가 손흥민의 이적 루머를 주목하며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1억5000만 유로(약 2055억원)를 손흥민의 이적료 하한선으로 정했다. 그 이상을 상대가 제시해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독일의 축구 시장가치 전문매체인 트랜스퍼마크트가 손흥민에게 설정한 몸값(6400만 유로·약 873억 원)의 2배에 달한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실력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2018~2019시즌 토트넘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을 진두지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2019~2020시즌에도 32경기(리그 컵 포함)에서 16골·9도움을 올렸다.

환상의 궁합을 보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아르헨티나)이 떠나고 주재 무리뉴 감독(포르투갈)이 토트넘 지휘봉을



손흥민

잡았지만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하게 됐고, 최근에는 해병대에서 기초군사훈련까지 마쳐 새로운 도전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데 이번 여름은 왠지 심상치 않다. 토트넘의 호주머니 사정 탓이다. 토트넘은 10억 파운드(약 1조5300억 원)를 들여 새 경기장(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신축했는데, 6억 3700만 파운드(약 9700억 원)의 은행 빚을 떠안았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심화

된 토트넘은 이자를 갚기 위해 최근 영국 은행에 긴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트넘에게 선택지는 넓지 않다. 자산 매각이 불가피하다. 데일리 메일과 미러 등 영국 언론들은 “무리뉴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주축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부정적이다. 손흥민뿐 아니라 해리 케인도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투카 모드리치와 가레스 베일 등을 넘겨 고수익을 올린 기억을 가진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의 뜨거운 구애를 뿌리치는 쉽지 않다. 독일(함부르크·레버쿠젠)~영국을 거친 동안 132골·58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3년 6월까지 계약돼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EPL, 6번째 선수조사 확진자 '0' 17일부터 무관중 잔여 경기 개시

리그 재개를 앞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진행한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7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5일과 6일 코로나19 검사가 한 차례 더 실시됐다.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리그 재개를 앞두고 각 팀의 지도자, 선수, 스태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선수 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3번의 테스트에서는 단 1명만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2019~2020시즌 잔여 경기가 지장 없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 경기 스케줄과 키오프 시간을 공개했다. 애스턴 빌라-세필드 유나이티드전이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 6시(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에 열린다. 이 경기는 리그 재개 후 첫 번째 경기다. 이어 2시간 15분 후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경기가 펼쳐진다. 두 경기의 중계 방송 사도 결정됐다.

한편 EPL 사무국은 리그가 재개되면 출전선수명단과 교체선수 활용 횟수를 확대한다. 각 팀은 교체선수명단에 9명을 포함시키고, 5명까지 교체 투입할 수 있다.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결정이다. 또한 홈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리그의 승인 하에 중립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월드컵 2차 예선 10월 재개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10월, 11월에 재개될 전망이다.

월드컵 2차 예선 5, 6차전이 3월, 7, 8차전이 6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제히 연기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최근 회원국들과의 화상 회의를 통해 월드컵 2차 예선 대체 일자를 논의했고, 10월과 11월 개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5일 “AFC와 화상 회의를 통해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았고, 올해 안에 월드컵 2차 예선을 마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A매치 기간은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 현재로서는 10월과 11월에 연기된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월 경기는 10월에, 6월 경기는 11월에 각각 진행된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3월 튀르키예니스탄과 월드컵 2차 예선 H조 5차전(홈), 스리랑카와 6차전(원정)을 치를 계획이었다. 6월에는 북한과 7차전(홈), 레바논과 8차전(홈)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었다.

한편 AFC는 챔피언스리그 재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대회를 정상적으로 끝낸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다. 정지훈 기자 stop@donga.com



울산 현대 이청용(가운데)이 6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펼쳐진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반지에 키스하고 있다. K리그 복귀 후 처음으로 득점포를 터트린 그는 후반 14분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큰 이상이 없다는 병원 소견을 듣고 한숨 돌렸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복귀골 넣고 부상 교체...‘호사다마’ 이청용

(울산)

포항전 멀티골...4-0 승리의 주역 후반 최영준과 충돌로 무릎 통증 울산 “큰 부상 아니다” 한숨 돌려



이청용

이청용(32·울산 현대)이 그토록 기다렸던 K리그 복귀골을 터트렸지만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한숨 돌렸다.

이청용은 6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5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결승골 포함 2골을 터트려 팀의 4-0 대승을 지휘했다. 0-0이던 전반 25분 주니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흐르자 문전으로 쇄도하며 K리그 무대 복귀 후 첫 골을 신고했다. 이어 11분 뒤에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왼발로 낮게 깔아 슈팅에 다시 한 번 포항의 골문을 열었다.

이청용이 유럽진출 이전에 K리그에서 골을 넣은 것은 2009년 7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FC서울 소속이었던 그는 강원FC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1골을 기록했다. 이 경기를 마친 뒤 그는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이었던 볼턴 원더러스로 떠났다. 11년 만에 K리그 무대로 돌아와 울산 유니폼을 입은 이청용은 5경기

만에 마수결이 득점에 성공했다. K리그 골은 10년 10개월 18일 만이다. 지난달 30일 광주FC와의 원정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할 기회가 있었지만 비디오판독시스템인 VAR를 통해 골이 취소됐다. K리그 무대 한 경기에서 멀티 골을 넣은 것은 2008년 7월 19일 전북 현대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호사마다였다. 이청용은 후반 14분 포항 최영준과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돌했고, 무릎에 통증을 호소했다. 울산 벤치는 곧바로 이청용을 교체했다. 이청용은 오른쪽 무릎과 발목에 아이싱을 하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울산 코칭스태프는 무릎보다 이청용의 발목 부상을 더 걱정했다. 이청용은 두 번째 골을 넣은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산 코칭스태프는 후반 10분쯤 이청용을 교체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불이 아물지 않아 교체가 빨리 이뤄지지 못했다.

울산 관계자는 7일 “이청용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무릎 내측 단순 타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아직 통증이 있어 다음 경기 출전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쪽 발목은 두 번째 골을 넣는 과정에서 발이 밀리면서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무릎 꿇은 이동국...골 세리머니에 담은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

(전북)

스토리사커

이동국(전북 현대)의 한쪽 무릎꿇기 세리머니가 화제다. 6일 FC서울과 K리그1 5라운드 원정경기 후반 9분 팀의 3번째 골을 넣은 뒤 동료와 함께 한쪽 무릎을 꿇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는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를 담고 있다. 지난달 K리그 개막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왼손 바닥 위로 오른손 엄지를 올려놓는 ‘덕분에 첼리지’로 주목 받은 이동국이 또 한번 깊은 울림을 전했다.

오산고 차두리 감독도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그라운드 센터서클에 모여 단체로 세리머니를 펼치며 “피부색, 태생, 환경 그 무엇보다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럽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동국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느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뛰던 차 감독은 ‘마는 냄새’ 때문에 차별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 출신에 대한 차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쪽 무릎꿇기는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폴린 캐퍼닉이 처음 선보였다. 2016년 8월 NFL 경기를 앞두고 미국 국가가 연주되자 국민연례 대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당시 미국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이 잇따라 사망하자 캐퍼닉은 “흑인과 유색 인종을 탄압하는 나라의 국기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일어설 수 없다”고 저항했다. 이후 무릎꿇기는 차별 반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퍼포먼스가 지구촌 그라운드를 뒤덮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의 언더셔츠 글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GEORGE FLOYD)’가 신호탄이었다. 이후 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분데스리가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과 첼시, 뉴캐슬 선수단도 한쪽 무릎 꿇기로 항의했다. 선수 개인을 넘어 팀 전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며 메시지의 무게를 더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호응했다. FIFA는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이나 정치적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두는 분위기다. FIFA는 산초의 행위에 대해 독일 축구협회가 징계를 가하지 못하도록 “축구 규칙을 상식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 규칙에는 ‘경기 중 선수가 신체나 물품을 이용해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담은 구호나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FIFA는 이번 경우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도 “차별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축구장의 인종차별은 고질적이다. 그 전쟁



전북 현대 이동국이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뜻으로 한쪽 무릎을 꿇는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선수들은 골 세리머니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은 현재진행형이다. 선수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세리머니다. 흥겨운 뒤편이 세리머니의 전부가 될 순 없다. 그 속엔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한쪽 무릎꿇기 같은 저항의식도 그 중 하나다. 세리머니가 전하는 메시지를 되새겨보자.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매너리가 암바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킥 차는 그날까지!

각 경기 예능의 끝판왕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